

Magazine

# 새벽종

2023 11·12 제11호

## 시작하다

새벽종

2023 11+12 제11호

# BE



# GIN

 새마을운동중앙회



ISSUE NO.11  
ISSN 2799-9343



(새벽종)은 친환경 종이와 콩기름 인쇄로 제작되어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섭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Prologue

삶은 늘 시작의 연속입니다. 그 시작이 하루를 살게 하고, 또 1년을 그리고 앞으로를 살게 합니다.

2023년 새마을운동도 끊임없는 시작의 연속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시작을 통해 맺은 결실들을 모아 이제 더 큰 내일을 그리려 합니다.

새마을 청년들의 힘찬 기운과 기존 회원들의 숙련된 노하우가 더해져

더욱 새로워질 새마을운동, 이제 시작입니다.



# Contents

2023 11+12 제11호



06 Focus 1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청년의 약속」 선포식

10 Focus 2  
2023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열려

12 어울림  
2023년을 빛낸 올해의 새마을운동

16 누리  
과거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공존  
- 인천광역시 동인천 여행

20 Interview  
K-며느리,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다  
- 이정자 안양시새마을회 자문위원 &  
크리스티나 콘팔로니에리 씨

24 새마을 아카이브  
새마을교육기록물 편

26 새마을 사람들 1  
1% 기부로 따뜻한 기적을 전하다  
- 충북 진천군새마을회

30 새마을 사람들 2  
연대와 화합으로 꽃피우는 새마을정신  
- 경남 하동군지회

34 새마을 사람들 3  
상상의 지평을 넓혀줄 명품 만화방의 탄생  
- 문고 경북 봉화군지회

38 지구촌새마을운동  
전 세계 든든한 동반자, 새마을운동

42 슬기로운 탄소중립 생활  
에코백,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요?

46 중앙회 소식

47 시·도 소식

50 현장은 지금

58 새마을 통통통

발행일  
2023년 11월 25일

발행처  
새마을운동중앙회

발행인  
곽대훈

기획  
새마을운동중앙회 홍보실  
T. 031-620-2371~5  
F. 031-620-2379

편집·디자인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광고·구독·주소변경  
T. 031-620-2373  
magazine@saemaul.or.kr

본지에 게재된 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매거진 <새벽종>을  
휴대기기에서도  
간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Magazine



Webzine

#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청년의 약속」 선포식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내일을 이끌어갈 이들이 한데 모였다. 지난 11월 12일 일산 킨텍스전시장에는 국내 새마을지도자 4,500여 명과 청년·대학생 2,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의 약속 - 새마을운동, 이제 청년이 앞장섭니다' 선포식과 함께 2023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열렸다.

글: 편집실 사진: 홍보팀



새마을운동 성과와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2023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온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새마을운동의 비전과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년의 약속 - 새마을운동 이제 청년이 앞장섭니다'라는 주제로 선포식도 열렸다. 이번 대회와 선포식을 통해 새마을지도자들은 서로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2024년 새마을운동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대회는 영상 상영(2023 보람의 현장), 광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 대회사, 유공자 포상, 대통령 축사, 청년의 약속 선포식, 새마을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포상에는 새마을운동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최경옥 전 라남도새마을부녀회장, 김성희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시지부 회장, 임명률 경상남도 통영시새마을회장 등이 시도를 대표해 새마을운동 포상을 받았다.

이어 배진호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장, 전치무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장 등 청년세대가 새마을지도자들 앞에서 '청년의 약속'을 선포했다.

이번 '청년의 약속'은 새마을운동의 고귀한 정신과 가치를 공감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상생과 통합', 기후 위기에 맞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위한 '실천과 행동', 세계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새마을운동은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 만들기,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 지구촌 공동번영, 창의적·혁신적 지도자 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세대의 새마을운동(청년새마을연대 215개 3,000여 명) 동참을 격려하고 대학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새마을동아리(대학업무협약 73개소, 새마을동아리 결성 64개소 2,400여 명) 결성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대회사에서 "할 수 있다는 새마을정신의 참된 가치를 되살리고 단합된 의지와 노력으로 혁신의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청년들과 함께 달라진 새마을운동! 젊어진 새마을운동! 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자"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에서 "과거 마을 개량과 농촌 혁신을 선도한 새마을운동이 이제 고도 산업사회에서 도시·직장·산업체의 혁신을 주도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혁신운동이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돼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서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운동이 청년 미래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라며 "우리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고 글로벌 연대를 더욱 튼튼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 젊게, 더 넓게 펼쳐질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중앙회는 1972년부터 지금까지 149개국 6만 5천여 명의 해외 새마을지도자 초청연수를 통해 새마을운동 노하우를 전수했다. 올해 45개국 550여 명을 대상으로 새마을교육을 실시하고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오세아니아 등 10개국 44개 마을에서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새마을정신을 공유한 46개국을 하나로 연결해 새마을운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SGL(Saemaul Undong Global League·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을 2016년에 창립했다.

또한, MZ세대와 적극 소통하고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전국 73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64개 대학 새마을동아리가 결성되어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키르기스스탄과 피지로 첫 해외봉사를 다녀왔으며, 겨울방학 때 해외봉사단 2기도 출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아리학생들의 졸업 이후 활동의 연속성과 새마을운동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청년조직도 새롭게 결성되었다.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는 지난 6월 창립총회를 거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청년의 약속>선포식을 갖고, 함께 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구 환경을 지키며, 세계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세대가 앞장서 젊은 새마을운동, 달라진 새마을운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



“청년들과 함께 달라진 새마을운동!  
젊어진 새마을운동! 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찬 내일을 열어갑시다.”





# 2023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열려

지난 11월 2일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그랜드볼룸에서는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를 주제로 2023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GSLF)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세계적 확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연대하여 인류의 공동번영을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만들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을 기원했다.

글: 편집실 사진: 홍보팀

## 세계와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행정안전부, 외교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후원하는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는 지난 2014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지구촌 공동번영과 새마을운동의 세계적인 확산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지구촌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온 해외 새마을지도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국가별 지역개발정책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동티모르 마리아노 아사나미 사비노 부총리, 파푸아뉴기니 국가 기획감독부 키노카 페오 차관, 캄보디아 농촌개발부 싸오 치보안 차관, 필리핀 농업부 아르넬 드 메사 차관보 등 지구촌 46개국의 고위급 공무원과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SGL: Saemaul Undong Global League) 대표단, 새마을 협력관, 주한 외국 대사, ODA유관기관 관계자, 외국인 유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를 주제로 열린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는 참가국 기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2023년 지구촌 새마을운동 사업 및 활동 성과 영상 상영,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 대회사, 우수사례 발표, 환영사, 축사, 지구촌새마을운동 유공 포상,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지구촌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공로로 임형백 성결대학교 교수, 키르기스스탄 악바샤 초등학교 미노바르 니야사바 교장, 온두라스 쿠알리마을 후안 바스케스 새마을지도자, 라오스 비엔티안주 썬아룬 수리아봉 농림부 국장에게 포상이 수여됐다. 또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이후 오후에는 국가별 새마을운동 우수사례와 지역개발 사례,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주한 대사 초청 세미나와

국가별 지역개발 정책 공유 세미나가 열렸다.

## 단단한 연대로 새로운 변화의 바람 기원

새마을운동은 유엔개발정상회의(UNDP)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 이행을 위한 최적 수단으로 선정되는 등 개도국 개발수요에 부합하는 모형(모델)으로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으로부터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가 브랜드이다. 또한, 새마을운동기록물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올해 10주년을 맞이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1973년부터 현재까지 149개국 65,00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를 초청해 새마을운동의 노하우를 전수해 왔다. 이를 통해 라오스, 우간다 등 21개국에 102개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마을환경개선과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올해도 10개국에서 44개 시범마을을 조성해 새마을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초청연수 등 새마을교육 후 외부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시행한 자생마을(외부 지원 없이 마을 자체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시행한 마을)도 400개 이상 생겨났다.

동티모르 마리아노 아사나미 사비노 부총리는 축사에서 “새마을운동은 현지주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매우 훌륭한 지역사회 개발모델이며, 우리 정부는 법제화를 통해 시범마을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새마을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앞으로도 정부가 주도하고, 주민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대회사에서 “우리는 다시 새마을운동으로 세계와 함께 인류의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라면서 “새마을운동의 세계적 확산과 모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단단한 연대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만들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 2023년을 빛낸 올해의 새마을운동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팬데믹 시대가 막을 내렸고, 그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고 더 빠르게 변하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새마을운동 역시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새로운 슬로건을 내세우고 그 어느 해보다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올 한 해 새마을운동을 빛낸 이슈를 소개한다.

글: 편집실 사진: 홍보팀



## 새로운 비전,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

사회적 갈등 해소와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해 직접 행동하고 실천하면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의 역할이다. 이에 2023년 새마을운동은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 ‘지구촌 공동번영 구현’, ‘창의적·혁신적 새마을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였다.



## 튀르키예·시리아에 피해복구 성금 전달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은 2월 6일 튀르키예 동남부 가지안테프 인근을 강타한 지진이다. 이 지진으로 최소 3,549명이 사망하고 20,500여 명이 다쳤으며, 3,471채의 건물이 파괴됐다. 전 세계에서 이들을 위해 구호 물품과 복구 인력 지원을 아끼지 않은 가운데, 새마을운동중앙회 역시 3월 16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찾아 지진 피해를 위로하고 구호 성금 3억 6,000여만 원을 전달했다. 해당 성금은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자체적으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모금 운동을 통해 모은 것이다.

## 2023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

새마을정신과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획기적인 도약과 미래 비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가 지난 7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46개 협력국 중 29개국 장·차관이 참가했다.

이날 국가별 맞춤형 새마을운동 추진, 새마을 시범마을 사업의 모델화와 자생적 확산 방안,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개발도상국의 SDGs의 달성과 새마을운동의 현지 국가 정책화를 위한 선언문을 채택해 발표하고, 향후 지구촌 새마을운동 성과 공유를 위해 장관회의도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새마을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1970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추진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지난 2013년 6월 18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지난 6월 18일 '새마을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으며, 지난 9월 13일에는 '기록유산의 가치와 미래, 기록물을 통해 본 새마을운동' 오픈 세미나와 '초록바람, 추억이 되다! 희망이 되다!' 특별전시를 두 달간 개최했다.



### 재난 현장 곳곳에 출동한 새마을지도자

해를 거듭할수록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해는 날로 커져간다. 올해 역시 기록적인 기습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셀 수도 없는 피해가 속출했다. 이 소식을 들은 전국 새마을지도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발적으로 봉사단을 결성했고, 그 수가 3,683명에 달했다. 이들은 폭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국 109개 수해 지역 현장에서 주변 환경 정리, 농작물 하우스 복구, 강가 쓰레기 및 부유물 수거, 침수 가구 청소, 유실 도로복구, 공공시설 정비 등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수해 주민에게 필요한 휴지, 물티슈, 라면, 도시락, 생수, 의류 등의 생필품과 십시일반 모은 성금 1,400만 원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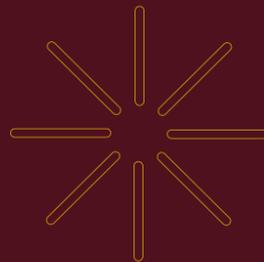


###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출범

새마을운동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려면 청년세대의 유입과 활동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느낀 해이다. 이에 오랜 준비기간 끝에 올해 기존의 청년조직인 Y-SUM포럼 회원과 대학새마을동아리 졸업생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청년조직인 '전국청년새마을연합'이 출범했다.

지난 6월 138명의 시도별 청년새마을연합회 회장과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회장단을 선출했으며, 지난 11월 12일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청년의 약속>선포식을 가졌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앞으로 청년세대의 직·간접적인 새마을운동 참여를 통한 차세대 새마을지도자를 육성하고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등으로 청년세대를 유입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제1기 대학새마을동아리 해외봉사단

젊은 새마을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역인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들이 지난 7월 '제1기 대학새마을동아리 해외봉사단' 발대식을 마치고 첫 해외봉사를 떠났다. 총 40명의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들은 피지와 키르기스스탄으로 각 20명씩 나뉘어 2주간의 일정으로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을 전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회원들은 부실 위험이 있는 건물의 기초 공사, 도색과 벽화 그리기 등을 통해 마을 전민의 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

또 전염병과 감염병에 취약한 덥고 습한 환경에 노출된 이들에게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이·미용 봉사를 통해 개인 청결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놀잇감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태권도, K-POP 음악과 안무 등으로 즐거움을 전했다.

첫 해외봉사에서 좋은 추억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대학새마을동아리 해외봉사단은 앞으로도 꾸준히 해외봉사단을 모집하고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

# 과거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공존

## 인천광역시 동인천 여행

‘단 하루’를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디로 떠날지 고민하게 된다. 휴식, 관광, 자연, 역사 등 관심사에 따라 선택지가 다양하겠지만 과거부터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한데 어우러진 이색적인 매력을 느끼고 싶은 이들이라면 ‘동인천’을 추천한다.

글. 편집실

서울에서 쉽게 갈 수 있는 인천. 인천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도시의 모습이 천차만별이다. 그중에서도 동인천은 부평과 동구, 남동구까지 아우른다. 인천의 구도심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세월의 풍파가 느껴지는 곳이지만, 구석구석 알고 보면 재미가 넘쳐나는 동네기도 하다. 동인천 여행 테마를 잡자면 ‘공존’이라 할 수 있겠다.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넘치는 부평에는 세계 최대 지하상가, 지상의 전통시장, 다채로운 음식점 등 눈길에 가는 곳마다 발길을 멈추게 한다. 수도권의 대표 어시장인 소래포구도 빼놓을 수 없다. 멀리 가지 않아도 바다내음과 운치, 맛까지 동시에

즐길 수 있다. 갈대밭 위에서 유유히 돌아가는 이색적인 풍차와 습지, 도시가 한데 어우러진 남동구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그리고 인기 관광지가 된 동구 배다리마을에는 광복 이후 인천을 떠나는 일본인들이 책을 팔면서 형성된 오래된 한책방거리가 있다. 1960~1970년대 전성기를 맞았던 이 곳은 이제 몇몇의 서점만이 그 뒤를 잇고 있지만, 오래된 책에서만 느낄 수 있는 시간의 향기를 맡고자 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의 시간이지만 여전히 흐르고 있는, 옛것이지만 새로운... 이렇듯 동인천은 어느 한 단어로 특정할 수 없는 독특한 감성이 넘쳐난다. ↕



# 이곳만은 꼭! 인천광역시 동구새마을회가 추천하는 동인천 여행



### 배다리 헌책골목

배다리란 지명은 작은 배가 바닷물이 들어오던 수로를 통해 철교 밑까지 드나들었다는 데서 유래했다. 인천 유일의 헌책방 골목으로, 광복 직후 인천을 떠나는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일본 책을 고물상에 헐 값으로 넘기면서부터 형성됐다.

📍 인천 동구 금곡로 3



### 배다리 성냥박물관

우리나라 최초의 성냥박물관으로 1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성냥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배다리 성냥박물관은 '산 도깨비불! 인천 성냥공장'을 주제로 성냥의 역사, 성냥 생활사, 성냥공장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다.

📍 인천 동구 금곡로 19



### 인천대공원

사계절 다른 매력을 품은 인천대공원은 인천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삶의 여유를 선사한다. 봄에는 벚꽃이 활달하고 여름에는 신록이 눈부시다. 또 가을에는 붉게 물든 단풍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풍기며 겨울엔 소복하게 쌓인 눈이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 인천을 여행한다면 꼭 한번 들려야 할 필수 코스다.

📍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 236



### 소래습지생태공원

살아 있는 갯벌과 너른 습지를 관찰할 수 있는 도심 속 생태공원이다. 소래습지생태전시관에는 갯벌과 습지의 중요성과 살고 있는 생물 등을 전시를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다. 3층에 마련된 전망대에 오르면 소래포구와 주변 갯벌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탐방 데크 중간 중간에는 조류관찰대가 설치되어 있어 습지를 찾아 날아온 철새들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 인천 남동구 소래로154번길 77



### 인천아트플랫폼

원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개항 당시 인천항의 하역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했다. 예술가에게는 창작공간으로, 시민에게는 문화·예술 향유의 광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 인천 중구 제물량로218번길 3



### 인천개항박물관

일본제1은행이었던 건물을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한 곳이다. 총 4개로 구성된 상설 전시에는 1883년 인천 개항 이래 인천항을 통해 처음 유입되었거나 발생한 근대유물들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 인천 중구 신포로23번길 89

## • 인천광역시

## • 동구새마을회 •



### 소개 부탁드립니다.

인천 동구새마을회는 김민철 동구새마을회장을 주축으로 김경호 협의회장, 강원주 부녀회장이 11개 동 40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들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도농지역교류 활동 강화, 학교·가족공동체 복원 활동,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와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제로화 사업, 친환경 마을가꾸기 사업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 인천 동구새마을회에서 주력으로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탄소중립운동을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행정안전부 국고사업인 친환경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심정원가꾸기'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 동구 현대시장 방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해 시장주변 100m 가로화단에 화초를 심어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 무수한 활동 내용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나요?

동구는 인천 원도심 지역으로, 노후화된 가옥이 많고 사회와 이웃의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 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저희 새마을지도자들은 2005년부터 재능기부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새마을운동을 하시면서 느낀 보람은 무엇인가요?

새마을운동은 사회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입니다. 남을

돕는 일이지만, 그 일은 곧 나를 풍요롭게 하는 일이 됩니다.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활동은 매 순간 보람되고 감동의 연속입니다.

### 인천 동구새마을회의 자랑거리가 있다면요?

'소통'입니다. 올 한해 11개 동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방향과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너무 소중한했습니다.

### 2023년도 추진한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필요한 것을 전하는 물질적인 도움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도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 지역 이웃을 위해 식생활 및 주거환경개선, 교육 등을 통해 그들의 자활을 돕고 응원했습니다. 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여 세대 간의 소통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했습니다.

### 올해 남은 하반기 계획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마을운동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진화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진행한 사업을 바탕으로 2024년도에는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위기 극복을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구 환경 지키기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왼쪽부터) 강원주 부녀회장, 김민철 동구새마을회장, 김경호 협의회장

# K-며느리,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다

이정자 안양시새마을회 자문위원 &  
크리스티나 콘팔로니에리 씨

## ‘함께하면 배가 되는 봉사

입동이 하루 지난 오늘,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이 느껴지는 날이다. 몸이 절로 움츠러질 만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양시 새마을회관 주차장엔 이른 아침부터 빨간 고무장갑을 낀 사람들로 북적였다. 관내 이웃에게 전달할 김치 3,000포기를 담그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모인 회원들. 오늘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 나눔’ 활동을 위해 안양시새마을지도자, 다문화가족, 한림대느린소봉사단 등 300여 명의 봉사자가 손을 보탰다. 그리고 안양시새마을회의 대표 고부 사이인 이정자 안양시새마을회 자문위원과 그녀의 며느리인 방송인 크리스티나 콘팔로니에리 씨도 함께했다.

산처럼 수북하게 쌓인 절인 배추는 깨끗하게 행군 뒤 길게 늘어난 테이블로 차례차례 옮겨진다. 회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익숙한 손놀림으로 배춧잎 사이사이에 먹음직스럽게 버무린 빨간 김칫소를 켜켜이 바른다. 바구니에 김치가 가득 담기면 이번엔 긴장한 청년들이 김치를 포장대로 나른다. 정성스레 담은 김치를 새지 않게 잘 동여매고, 박스에 차곡차곡 담으니 포장된 김치

한국에서 김장은 특별한 행사다. 춥고 긴 겨울을 나기 위해 먹을 김치를 준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김치는 사계절 언제나 담그지만 김장엔 이웃이 모여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공동체 문화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고 ‘함께’의 의미를 그 누구보다 최고로 생각하고 또 그 문화에 매료되었다는 안양시새마을회 이정자 자문위원과 그의 며느리 크리스티나 씨를 김장 활동에서 만났다.

글. 왕보영 사진 김병구

상자가 이내 담벼락처럼 높게 쌓인다.

새마을회원들의 김장 활동은 이맘때쯤이면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인데, 오늘 안양시새마을회 김장 활동은 조금 특별해 보인다. 물론 방송인 크리스티나 씨가 참여한 것도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그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김장 활동에 참여하는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들이 눈에 띈다. 베트남, 일본, 몽골 등 아시아권을 비롯해 러시아 등 유럽권 회원까지 다양하다.

“글로벌 사회잖아요. 외국인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고 또 한국인들도 외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활동이 있을 때마다 모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 음식을 배우며 친해져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안양시새마을회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크리스티나 씨는 각자 다른 문화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말한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일까. 안양시새마을회는 다문화 가정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오늘도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이 더 많았는데, 모두 수용할 수 없어 겨우 25명만 추렸다고 장광일 사무국장이 말을 보탠다.



새마을운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

크리스티나 씨는 남편 김현준 씨를 이탈리아에 있는 어학원에서 만났다. 그가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 하자, 크리스티나 씨는 그를 따라 한국에 왔다. 그리고 2007년 결혼했다. 결혼 후 시어머니와 한집에서 살게 된 크리스티나 씨는 자연스럽게 새마을운동을 알게 됐다.

그녀의 시어머니인 이정자 안양시새마을회 자문위원은 누구보다 적극적인 새마을지도자다. 그녀는 안양에서 살기 전엔 서울에서 가사 선생님을 하며 동시에 적십자를 비롯한 여러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남편의 이직으로 안양에 터를 옮기면서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게 됐다. 39세부터 시작한 새마을운동을 78세인 지금까지 애정 가득 담아 이어오고 있다. 젊을 때의 체력이나 활동 횟수에는 비할 바가 못 되지만 그 마음이나 노하우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무르익었다.



“안양으로 이사 오면서 남편이 열심히 봉사하라고 차 한 대 사주더라고요. 그 차를 몰고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봉사를 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안양시새마을회는 정말 알아줬어요.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제가 크리스티나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새마을 사람이다. 새마을운동은 우리 인생의 기본이다. 봉사하면서 마음을 채우고, 이웃을 섬기며, 모두가 잘 되는 것, 그게 새마을운동이다. 그러니 같이하지 않을까? 라고요.”

시어머니의 제안에 크리스티나 씨는 흔쾌히 “좋아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한국에서 방송 출연하러 학생들을 가르치라 비뻔 그녀. 사실 오늘도 이탈리아 대사관의 초대가 있었는데, 김장 활동이 선약이었다며 기꺼이 새마을운동에 참여할 만큼 시어머니 못지않은 애정을 드러냈다.

“이탈리아에도 공동체 문화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 달라요. 이탈리아는 종교를 기반으로 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새마을운동만 보더라도 대가나 의도가 없잖아요. 조금 신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모이는 것도, 돕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새마을운동에 동참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오히려 좋은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 들어 더 고맙더라고요.”

어느덧 한국에서의 결혼생활 17년 차 K-며느리 크리스티나 씨는 시어머니 덕분에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마을운동 덕분에 진짜 한국 문화와 정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새마을운동, 오래 이어가고파

크리스티나 씨는 결혼 후 시어머니의 권유로 KBS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하면서 세간의 관심과 인기를 얻었다. 그 덕분에 한국에서의 적응이 다른 이들보다 조금은 더 쉬웠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다수의 관심과 애정 덕분에 한국 사회에 무탈하게 정착했듯, 이젠 그녀가 다른 이들을 위한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는다.

“안양시새마을회에서 하는 ‘우리동네 행복밥상’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과 어르신, 부녀회 등이 함께 하는 활동이죠. 이번엔 베트남에서 온 응우옌티끼에우응우엣투이 씨가 셰프가 되어 월남쌈 만드는 법부터 예쁘게 싸는 법까지 현지어만 알 수 있는 진짜 팁도 알려줬어요. ‘행복밥상’에서는 누구나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셰프가 될 수 있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행복밥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새마을운동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 한국에 오길 잘했다’라고 느꼈으면

“저는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는 다문화 가족들이 새마을운동을 통해 ‘아 한국에 오길 잘했다’라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1 김장 봉사를 하고 있는 며느리 크리스티나 씨와 시어머니 이정자 자문위원

2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 모인 회원들.

3 관내 소외 이웃에게 나눠 줄 김치.



좋겠어요. 제가 그렇듯 다문화 가족들도 여기가 두 번째 고향처럼 느끼고, 한국에서의 삶이 외롭지 않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같은 다문화 여성으로서 다른 이들의 삶을 응원하는 그녀의 고운 마음과 그 마음이 다른 이들에게 닿는 순간이다. 크리스티나 씨는 과거 자신이 출연했던 <미녀들의 수다> 프로그램처럼 앞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토크쇼도 구상 중이라고 한다. “제가 사회를 보고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는 다문화 가족분들을 패널로 모시는 거죠. 각 나라의 문화나 풍습 등 한국과 무엇이 다른지 정말 실감나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봉사할 때는 타의 모범이 되게 하라’는 이정자 자문위원의 말처럼

그녀의 며느리 크리스티나 씨 역시 기웃거리는 봉사가 아니라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 3시간가량 지났을까. 어느덧 배추 3,000포기 김장이 끝이 보인다. 모든 봉사가 그럴겠지만 특히 김장은 ‘우리’, ‘함께’의 힘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어서 좋다는 크리스티나 씨. 마음을 담은 김치가 하나둘 이웃의 품으로 출발한다. 걸 절이를 특히 좋아한다는 그녀. 김장이 끝난 후 모두가 함께 오늘의 수고를 격려하며 함께 준비한 식사로 허기진 배를 달랜다. 오늘 이정자 자문위원과 크리스티나 씨, 그리고 회원 모두는 이웃에게 김치를 선물했지만, 우리 모두는 추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는 온정을 선물 받았다.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꾸준히 이어갈 그들의 새마을운동을 응원해 본다. ☺

# 새마을운동의 한 축이자 핵심 원동력인 새마을교육

## 새마을교육기록물 편

### 독농가연수반 수료기념 제1기(통산 제1기) 수료앨범

1972년 1월 30일~2월 12일 | 26.5×19

독농가연수원 | 국가지정·유네스코기록

농촌새마을운동의 우수사례를 통해서 마을지도자들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견해에 따라 1972년 1월부터 농림부의 주관 아래 새마을교육이 추진되었다. 첫 시작은 독농가연수원(새마을지도자연수원의 전신)이었다.

### 수료생 앨범

1972~1980년대 | 27×19 | 새마을지도자연수원



### 통신교재 '새마을운동' 통권 제1호(창간호)

1974년 7월 10일 | 15×21

새마을지도자연수원 | 국가지정기록

수료생들의 글을 받아 구성된 이 간행물은 수료생 간 대화의 장이자 정보교류의 장이었다. 고정 기사와 성공사례, 수료생들이 보낸 서신, 연수생들의 수료소감, 수료생 모임 소식 등이 담겼다.



새마을교육은 새마을운동의 한 축이자 핵심 원동력이었다. 대표적인 교육기관은 전국의 수많은 새마을지도자를 배출한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이다. 농촌개발을 위한 지도자 교육으로 출발하여 점차 국민정신 교육의 성격으로 발전했다. 교육대상 역시 새마을지도자를 비롯하여 부녀자, 공무원, 일반시민, 학생, 장·차관까지 확대됨으로써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정신교육 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새마을교육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새마을교육은 이론 위주의 강의식 기법을 벗어나 분임토의 및 성공사례 발표 등과 같이 행동과 실천 중심의 산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서로 교사가 되고 학생이 되어 새마을운동에 관한 열띤 토론을 나누었고, 이 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새마을운동의 해법을 배웠다. 또한 연수원 교육을 마친 후에도 수료생들과 주고받는 서신을 통해 새마을사업에 관한 상담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새마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종다양한 교재가 활용되기도 했다. 새마을운동에 관한 기본 이해를 돕는 교재를 비롯하여 연령·지역·직업·과정에 따라 특화된 교재들이 제작됐다. 이 밖에도 여러 분야의 새마을운동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시청각 자료를 통해 교육 효과를 넓혔다. ↘

### 수료생 서신첩

1970년대 | 26.5×19.5 |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서신 지도는 수료생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용도로 활용되곤 했다. 1973년부터 1981년까지 연수원에서는 총 7,181통의 수료생 서신을 접수하여 격려 회신을 보냈다.



### 『새마을학교 교본』

1973년 | 12.5×18.5×1.5 |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 국가지정기록

정부는 주로 초·중·고등학교의 방학기간(여름, 겨울)을 이용하여 새마을학교를 개설하고 영농기술 보급, 소득증대 교육, 새마을정신 교육, 생활보건 등을 단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부터 시작된 '잘살기 운동'이다. 활동은 문서와, 슬라이드, 녹음테이프, 영화필름으로 제작됐다. 특히 성공적인 농촌 부흥의 원형을 보여주는 기록유산으로써 중요한史料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6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2023년 '새마을 아카이브' 코너에서는 한국 농촌 근대화의 실록인 새마을운동기록물을 주제별로 나누어 소개하고 가치와 의미를 전하고자 한다.

# 1% 기부로 따뜻한 기적을 전하다

충북 진천군새마을회

된장, 간장, 고추장, 그리고 김치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먹을거리다. 그래서 예로부터 1년을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 장 담그는 날과 김장하는 날이 정해져 있을 정도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각종 장과 김치는 누군가에게는 귀한 선물이 되기도 한다. 지난 11월 9일 '장독대 채움 프로젝트, 고추장 담그기' 활동을 통해 이웃 간의 정을 나눈 충북 진천군새마을회를 만났다.

글. 이소연 사진. 이민희





**함께 하면 즐거운 진천군새마을회**

진천군새마을회는 남재호 회장을 비롯해 김진주 협의회장, 이정심 부녀회장, 김일권 직장·공장협의회장 그리고 권순영 문고회장과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11월 9일 회원들은 지역 내 홀몸 어르신 댁에 전달하기 위한 '장독대 프로젝트, 고추장 담그기' 활동을 진행했다. 밤사이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였지만 행사에 모인 새마을회원들은 따뜻한 차를 나누며 안부를 건넸다. 봉사 현장이라기보다 친목 행사처럼 느껴질 정도로 회원들의 얼굴엔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회원들 간의 끈끈한 연대 중심에는 남재호 회장의 열정이 있었다.

"제가 처음 새마을회에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조금 가라앉아 있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이왕 하는 거 즐겁게 봉사하면 좋겠다 싶어 일을 벌였죠. 사비를 들여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를 열었어요. 지도자들 간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결속력을 다지려고 한 것이죠. 한마음대회 이후에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회원들의 참여가 많아져, 자연스럽게 새마을회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천군새마을회가 올 한 해 진행한 사업만 해도 손에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주변 환경을 정리했다. 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젤 아이스팩을 이용한 천연방향제 만들기, 나무 심기 운동,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모으기 같은 사업도 진행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 내 교육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효 편지쓰기 운동과 교통안전 사고 예방 캠페인도 벌였다. 직장·공장협의회에서는 안전한 마을과 직장 만들기로 소화기 전달 사업을, 문고에서는 학생들의 독서 생활 증진을 위한 독서 골든벨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정말 많은 일을 했네요"라며 김진주 협의회장이 뿌듯한 듯 한마디 더했다.

**장독대마다 채워지는 사랑**

이날 진행한 '장독대 프로젝트, 고추장 담그기' 행사는 고령으로 고추장을 직접 담가 먹을 수 없는 홀몸 어르신들께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고추장 한 통이지만 소외 이웃에게 고추장을 전하면서 그간의 안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다. 그러니 전하는 것은 고추장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과 관심도 함께다.

이날 고추장은 숙성 없이도 바로 먹을 수 있는 고추장으로, 이정심 부녀회장의 연구 끝에 완성된 특별 레시피다. 먼저 엇기름 대신 청국장 가루를 기본 재료로 한다. 여기에 청국장 냄새를 잡기 위해 마늘을 다져 넣는데, 이때 마늘은 살짝 찌서 아린 맛을 없애는 것이 포인트다. 찌 마늘은 다져서 소주에 담가 하루 밤 숙성시켜 준비한다. 소주에 있는 알코올 성분이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청국장 가루와 고춧가루, 조청, 그리고 미리 숙성시켜 놓은 다진 마늘과 액젓을 넣는다. 보통 고추장을 만들 때 간은 소금으로 하는데, 숙성 없이 바로 먹는 고추장을 만들 때는 액젓으로 간을 하게 되면 감칠맛이 풍부해진다고 한다. 진천군새마을회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제 고추장이 이렇게 탄생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담그면 숙성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담그면 당장 오늘 저녁부터 먹을 수 있어요. 향긋한 마늘 향도

나고 액젓의 감칠맛도 풍부해서 요리할 때 다른 양념을 더 할 것도 없이 그 자체로 맛있는 양념 고추장이 되죠."

말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 살피며 재료들이 잘 섞이게 열심히 저어달라고 진두지휘하는 부녀회장 모습이 유명 셰프 못지않은 포스를 자아낸다.

이날 고추장 담그기 사업은 전액 후원으로 진행됐는데, '1% 기부로 따뜻한 기적들'이라는 행사의 슬로건과도 그 취지가 맞닿았다.

남재호 회장은 "후원은 그저 마음이죠. 아주 작고 사소한 보탬이라도 마음이 담겼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담은 고추장은 저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7개 읍면 160여 세대의 홀몸 어르신들께 나누어 드릴 예정이에요. 각 읍면 회장님들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마음도 함께 전해드릴 겁니다"라고 전했다. 고추장을 나누어 드릴 생각에 환하게 웃는 회원들의 모습이 마치 착한 일을 함께하고 칭찬받아 신난 아이들처럼 보였다.

**진천군새마을회의 활동은 2024년도에도 계속된다!**

그간 활동 중 기억나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모두 하나같이 좋았으며 셀 수도 없이 많다고 답한다. 그중 올해 군의 보조를 받아 시행하게 된 국제협력사업을 첫 번째로 꼽았다.

남재호 회장은 "19년도, 22년에는 자비로 부담해서 국제협력 사업을 진행했는데 올해부터는 군의 보조를 받게 되었어요. 4개 단체 회장님께서 발 벗고 나서 주셔서 군과 의회로부터 꾸준히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어 정말 뿌듯합니다"라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진천군협의회는 지난 21년도 충청북도협의회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받았으며, 21, 22년 전국 지회 평가에서는 진천군부녀회가 우수상을 받는 쾌거도 이뤘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고는 올해 처음 피서지문고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각 조직별로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자랑이 이어졌다.

올 한 해의 마무리와 내년도 계획에 대해 문자 11월 30일 캄보디아에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대형 정수기를 설치하고, 12월 8일 '진천군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를 끝으로 올해를 마무리

한다고 한다. 2024년도에도 국제협력사업을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며, 대전 중구, 경남 거제, 인천 서구, 서울 성동구 등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들과 농산물 직거래나 일손 이음 봉사활동 같은 도농 간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도 전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작은 것도 나누는 '1% 기부로 따뜻한 기적들' 만들어 갈 진천군새마을회의 거침없는 2024년도 활동을 기대해 본다. 🌱

1 장독대 채움 프로젝트 '고추장 담그기' 사업에 모인 회원들.

2 완성된 고추장을 담고 있는 모습.

3 (왼쪽부터) 남재호 진천군새마을회장, 이정심 부녀회장, 김진주 협의회장



# 연대와 화합으로 꽃피우는 새마을 정신

경남 하동군지회

지중해만큼 아름다운 한려해상을 품은 지역, 하동군. 이곳에 한려해상처럼 아름답고 넓디넓은 마음으로 이곳저곳을 보살피며 더 좋은 하동군 만들기에 일념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있다. 지역에 보탬이 되고자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 하동군지회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글. 장희주 사진. 김병구

## 불모지에서 명품동산으로

따뜻한 가을벌이 내리쬐던 어느 날, 하동군 금산면에 한 손에는 붓을 들고 한 손에는 물감 통을 든 새마을지도자들이 웅기종기 모여들었다. 그들의 임무는 힐링동산을 명품장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화분을 꾸미는 일! 하동군지회가 금산면에 힐링동산을 조성한 지는 벌써 6개월에 접어들었을 정도로 각고의 정성을 쏟아진 행한 프로젝트다. 오늘은 그 임무에 방점을 찍는 날로 2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고 있었다.

힐링동산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탄소중립 실천 국민운동 전개'를 위한 친환경 마을가꾸기 국고보조공모사업으로, 하동군지회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마을가꾸기사업 이전 힐링동산은 무성한 풀로 가득한 불모지나 다름없는 부지였다.

"미관상 좋지 않았을 뿐더러 주민들의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주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을 조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힐링동산으로 가꾸기 시작했죠."

부지로 선정된 이후 이 공간은 서서히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계절별로 어울리는 꽃모종과 종려나무, 배롱나무, 동백나무, 홍가시나무 등 다양한 나무도 심었다. 최근에는 가을과 어울리는





메리골드, 소국화를 심어 가을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페타이어에 그림을 그려 화분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붓을 든 회원들의 손길이 페타이어에 가닿기 시작하자 까맣기만 했던 타이어가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됐다. 힐링동산에는 없던 길도 생겼다. 맨발로 걸으며 산책할 수 있는 돌레길이 바로 그것. 주민들을 위한 하동군지회의 세심함이 엿보이는 구간이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조성한 공간인 만큼 이곳에서 산책할 주민들을 생각하니 회원들의 마음이 덩달아 살렌다.

**화합이 만들어 가는 조화**

해마다 의미있는 활동을 이어가는 하동군지회이지만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뿌듯한 한 해를 보냈다.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에 참가했고, 이곳에서 새마을운동제창 53주년 기념식도 성대히 개최했다. "전국 새마을회에 홍보도 하고, 시군구 지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행사 준비에 노력을 많이 했어요. 무엇보다도 하동군지회는 이번 행사를 위해서 태극기를 이용한 퍼포먼스도 진행했는데요.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녀회에서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지 몰라요. 덕분에 군민과 하나 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미연 부녀회장에게는 그날의 행사가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 하동군지회의 열띤 퍼포먼스는 군민들에게 새마을을 알리고 으뜸 봉사단체로 지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하기도 했다. 임태경 회장은 "53년의 역사를 가진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에 우뚝 서게 한 국민운동"이라며 "새마을운동이 오늘까지 이어져 온 것은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계승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애써주신 새마을가족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작지만 소중한 나눔 이어 나갈 터**

큰 행사에서 하동군지회의 끈끈함과 연대감을 보여줬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눠주는 일에도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 나갔다. 그중 하나는 하동군지회가 직접 재배한 고구마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한 것이다. 이미연 부녀회장은 받을 경작지로 만들기 위해 지도자들이 모여 돌을 줍고 흙을 고르던 그때가 눈앞의 일처럼 여전히 생생하다고 말한다. "지회를 중심으로, 모두가 협력해서 고구마와 배추를 경작할 수



있는 휴경지를 조성했어요. 그렇게 고르고 고른 땅에서, 경작한 고구마를 수확했어요. 땀방울이 모여 이뤄낸 결과물이라 그런지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합니다. 이걸 또 이웃에게 나눔했는데, 다시 한번 '새마을'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죠." 이 외에도 'I LOVE 하동! 칭찬해YO!', '희망소식 우체통 달아주기' 등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도 앞장섰다.

"요즘 시대는 누군가를 칭찬하는 데 너무나도 인색해요. 'I LOVE 하동! 칭찬해YO!'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했는데 칭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칭찬 강연회를 개최하고 칭찬 주인공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마련했어요. 칭찬 문화를 확산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었다며 군민들에게 호평을 받기도 했죠."

'희망소식 우편함 달아주기' 사업은 우편함이 없거나 낡고 녹슨 오래된 우편함을 새 우편함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다. 지역 주민을

1 친환경 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해 불모지였던 땅은 힐링동산이 되었다.

2 쓸모를 다한 페타이어를 이용한 화분.

대상으로 50여 개 가구에 새 우편함을 전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폐현수막 재활용센터 운영,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모으기, 영농 폐자재 수거 운동, 폐식용유를 이용한 재생비누 만들기 등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일에도 앞장서는 하동군지회다. 이쯤 되니 궁금해진다. 사회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주고 봉사하는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걸까. 하동군지회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신뢰'와 '화합'이라 말한다.

"회원 간의 신뢰와 화합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새마을농원과 새마을동산 조성 등 모든 사업 주관을 회원들이 함께 의논하고 진행하죠. 신뢰와 화합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뤄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 무엇보다 함께 참여해 주시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울릉도에서 진행한 '새마을연대 교류 협력 워크숍'을 비롯해 연례행사인 고추장 및 김장 담그기까지... 바쁜 한 해를 보냈고 여전히 바쁜 일정을 남겨 둔 채 열심히 새마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하동군지회. 이들의 끈끈한 연대 덕분에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이 미래 세대까지 계승되리라는 믿음이 불끈 솟아 오른다. ☺

Mini interview



**임태경 회장**  
올해 새마을 53주년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진행했어요.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무척 고마운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하동군지회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식 협의회장**  
30년 넘게 새마을활동을 이어오고 있어요. 다양한 행사를 하면서 지도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매우 우애가 깊어졌죠. 이 마음 한뼘 모아 앞으로 진행할 행사도 성공적으로 이뤄나가기 바랍니다.



**강남석 문고회장**  
2023년 문고를 개장하면서부터 문고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르신에게 책 읽어드리기, 폐현수막 가방 만들기, 페트병 재활용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의미 있고 보람찬 활동을 군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파이팅 하겠습니다!

# 상상의 지평을 넓혀줄 명품 만화방의 탄생

문고 경북 봉화군지회

그 어느 새마을문고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콘셉트의 새마을문고가 봉화군에 탄생했다.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새록새록 떠오르게 하는 '명품 만화방'이 바로 그 곳이다.

글. 장희주 사진 김병구

## 모두를 위한 만화방

“요즘 아이들은 인쇄 활자를 잘 안 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책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해답을 '만화책'에서 찾았어요. 만화를 통해서 보다 쉽게 책에 접근할 기회를 주자는 생각에서였죠.”

무엇보다 유창호 경북 봉화군새마을문고 회장은 일반 도서관에서는 만화책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만화방의 경쟁력을 단번에 알아봤다. 현재 명품 만화방은 봉화군 행복나눔센터에 위치한다.

사업이 시작된 건 2년 전의 일이다. 제일 먼저 만화방이 지역민의 거점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봉화군에서도 중심지에 위치한 행복나눔센터에 만드는 것으로 정했다. 장소는 생각보다 쉽게 결정할 수 있었지만, 만화방에 둘 만화책 구비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만화책 선정에 위해 새마을 읍면문고회장들로 구성된 '도서선정 위원'을 운영했다. 도서선정위원들은 명품 만화방에 적절한

만화책을 신중하게 선별하고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책장을 가득 채웠다. 명품 만화방이 하루하루 거듭할수록 더욱 다채로운 만화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이용자들인 아이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용됐기 때문이다.

“읍면문고회장님이 도서 선정에서부터 정말 많은 일을 해주셨죠. 봉천면 회장님께서만은 만화책의 장르를 구분하고 이를 책장에 진열하는 데 힘써주셨어요. 아이들이 주로 보는 책은 아이들의 시선에 맞춰서, 어른들이 많이 보는 책은 아이들의 것보다 높은 곳에 배치했어요. 아이들이 즐겁고 읽고 싶은 만화책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전해주곤 해요. 모른 척 지나칠 수 없어서 아이들이 원하는 만화책은 꼭 입고시키기 위해 늘 신경 쓰고 있습니다.”

## 시니어클럽이 보살피는 명품 만화방

예부터 기성세대에게 만화방은 '불량'하다는 편견이 있다. 그 편견을 말끔히 없애준 건 만화방을 운영하는 '시니어클럽' 덕분이다.





“시니어분들의 인자한 미소와 만화방 분위기를 보고 부모님들도 안심해요.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곳 명품 만화방이죠.”



“한 번은 어떤 아이가 하루에 한 권씩 만화책을 보러 만화방에 들렀어요. 한 달간 만화책 25권 정도를 읽고 간 것 같은데, 그때 아이의 어머니가 찾아오셨다가 깜짝 놀라 다시 돌아가셨어요. 만화방에 대한 편견이 있으셨던 거죠. 명품 만화방을 둘러보고 난 후에는 아이에게 “오해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하시기도 했죠. 아마도 만화방 운영을 시니어클럽에서 도맡아 주고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시니어분들의 인자한 미소와 만화방 분위기를 보고 부모님들도 안심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른들이 아이들을 친절하게 반겨주시니 부모님들이 더 믿고 만화방에 아이들과 함께 오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이곳에 맡겨둔 후 불일 보고 오는 부모님들도 계시요. 모두가 안심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곳 명품 만화방이죠.”

공간은 모든 연령층에게 사랑받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책과 기성 세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책들도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행복센터 안에 위치하다 보니 동에서 운영하는 강이나 강습을 듣고 난 후 만화방에 들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고는 한참 만화책을 읽다 가시죠. 그런 분들을 보면 ‘만화방 만들기를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 여권이 책들이 경쟁력**

명품 만화방에는 어느 만화방과 견주어도 손색없을 정도로 책장에

만화책들이 가득 차 있다. 만화방에 비치된 만화는 교육용뿐만 아니라 순정 만화, 역사 만화, 추억의 명작 등 1만여 권으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 웹툰으로도 인기가 자자한 만화책도 여러 권 보인다. 문고 회장단들의 시장 조사와 아이들의 의견 수렴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아이들의 편의를 위해 테이블, 두툼한 매트와 쿠션도 구비해 자유롭게 눕거나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수업을 끝마친 아이들이 명품 만화방에 들어서자, 휴대폰은 뒤로 제쳐두고 보고 싶은 만화책을 찾는 데 몰두하기 시작했다. 책을 펼쳐 들고 읽기 시작하자 재잘재잘하던 목소리도 금세 사라졌다.

아이들과 부모님의 지지로 봉화군의 사랑방이 되어가고 있는 명품 만화방.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아무래도 행복복지센터 운영 시간에 맞추다 보니 만화방 운영 시간이 아쉬워요. 오후 6시면 문을 닫아야 하고 주말에도 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만화책을 더 많이 읽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만화방’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만화방을 통해서 봉화군의 많은 아이들이 보다 책에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약지지결했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내 멈추고 아이들이 만화책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순간, 아이들은 어떤 상상의 나라를 펼쳤을까. 아이들의 꿈과 희망의 새싹이, 지금 여기 명품 만화방에서 싹트고 있다. ☺

- 1  
남녀노소 모두가 볼 수 있는 만화책으로 가득한 봉화군새마을문고.
- 2  
아이들의 사랑방이 된 명품 만화방.
- 3  
만화책을 정리하고 있는 새마을문고 회원들.



# 전 세계 든든한 동반자, 새마을운동

빈곤을 극복하고 함께 잘 사는 희망찬 내일을 개척한 우리의 소중한 경험을 전 세계와 함께 나누기 위해 1973년부터 외국인 새마을교육이 시작됐다.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구촌 곳곳의 시범마을 지도자들과 주민들을 위해 현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교재를 개발하고, 초청 연수, 파트너십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지구촌 공동 번영에 기여하는 지구촌새마을운동의 2023년을 돌아본다.

글. 편집실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새마을운동**  
과거의 경험은 미래의 큰 자산이 된다. 지난날 한국의 빈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새마을운동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세계 곳곳에 공유하고 이들의 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협력을 맺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맞춤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관리체계를 내실화했으며 외국인 새마을교육 내용을 다양화했다. 또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거점국가를 시범운영하는 등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에 앞장섰다. 나라별, 지역별, 마을별 다른 환경과 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하여 현지 맞춤형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늘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온두라스, 라오스, 피지, 우간다, 동티모르,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도미니카공화국, 부룬디, 잠비아 등 10개국 44개 마을에 시범마을을 조성했다. 시범마을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별 주민참여형 마을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환경개선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등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또 시범마을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평가와 모니터링도 꾸준히 진행했다. 특히 인프라와 새마을교육을 더하고, 이와 함께 농업기술 등을 전수 할 수 있는 한국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등 유관 기관과의 연계사업을 추진해 현지 마을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내 시도·시군구새마을회 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시범마을 및 자생마을 사업을 연계하고, 새마을협력관을 통해 현지 사업 추진도 지원했다.

새마을교육 내용의 다양화와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별 특성, 사업연차 등을 반영한 맞춤형 초청연수, 새마을운동 현지화 촉진을 위한 거점국가별 현지 연수, 새마을운동 사례공유, 국가정책화 지원 등을 위한 특별과정 등도 실시했다.

총 45개국의 마을주민과 공무원 등 554명을 대상으로 초청 연수(11개국 188명), 현지연수(2개국 130명), 특별과정(45개국 110명), 협력관 교육(12개국 16명), 유학생 교육

(50명), 장관회의(60명) 등을 진행하여 시범국가 사업연차와 현지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전개하고 역량강화와 청년리더 양성 등을 꾀했다.

거점국가 시범운영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에도 힘썼다.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를 개최해 새마을운동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구촌 새마을운동 소개, 교육용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해 새마을운동을 알렸다. 또한 지구촌새마을지도자 대회를 통해 새마을운동 사례와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견학 등을 실시했으며, 주한 외교관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해 새마을운동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알찬 지구촌새마을운동을 전개했다.

**진취적인 내일을 위한 전문가 특별과정 지구촌 연합체, SGL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Saemaul Undong Global League, 이하 SGL)를 한마디로 말하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새마을운동 지구촌 연합체이다. 각국이 지닌 고유한 문화적·경제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주민 주도로 가치사슬을 만들어 전 세계에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2016년 창립 이래 SGL은 현지에서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을 주도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새마을운동이 전 세계에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월)부터 11월 3일(금)까지 33개국 69명이 참가한 '2023 SGL·전문가 특별과정'이 열렸다. 연수생들은 4박 5일간 새마을운동의 핵심가치와 본질을 이해하고, 현장견학 등을 통해 새마을운동에 대한 현지화 및 추진 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과정은 강의, 세미나, 현장견학 및 문화체험, 입·수료식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참여자들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개념과 의의, 성과, 추진 원리 등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지구촌새마을운동 추진원리'를 통해 지구촌의 새마을운동에 대해 이해하는 교육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국가별 새마을운동의 핵심 사례를 공유했다. 교육과정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성공사례를 교훈 삼아 세계 각지에 접목할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가 됐다. 특히 새마을운동을 일방적으로 전수하기보다 현지 사정에 맞게 접목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전 교육과정을 마친 후 참여자들은 전쟁기념관과 청와대 등을 견학하며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한국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마을운동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일까. 현지 여건에 맞춰, 자생적으로 새마을운동이 정착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과 SGL을 통해 각국의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국가 간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새마을운동이 더욱 많은 국가로 번져나가길 바라본다. ✦



# 에코백,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요?



## 에코백은 친환경적일까?

에코백이 친환경적이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다. 과거 우리는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이용해 장을 보곤 했다. 이 장바구니는 주로 동네에서나 사용할 법한 아이템이었지 패션 아이템은 아니었다.

'에코백'은 생태를 뜻하는 'ecology'와 가방을 의미하는 'bag'의 합성어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생태계를 보전하자는 취지로 붙여진 이름이다. 에코백의 유행과 인기는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 디자이너 안야 힌드마치(Anya Hindmarch)는 흰색 천으로 만든 가방에 'I'm not a plastic bag(나는 비닐 가방이 아닙니다)'라는 슬로건을 새긴 가방을 디자인했다. 당시 패션쇼에 참석한 모델과 배우에게 이 가방을 나눠줬고, 그들이 그 가방을 메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진들이

우리는 친환경 라이프를 위해 손에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을 들었다. 유행처럼 번진 에코백 열풍으로 너도나도 에코백을 장만했고, 각종 행사가 열릴 때마다 에코백을 굿즈로 제작했다. 에코백이 유행을 넘어 일상이 된 요즘, 과연 우리의 선택은 옳은 일이었을까.

글. 왕보영

퍼지면서 비싼 명품 가방을 제치고 에코백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것이다.

물론 에코백은 쉽게 사용되고 버려지는 비닐봉지, 종이봉투나 동물의 희생이 필요한 가죽가방에 비하면 굉장히 친환경적이며 가볍기 때문에 실용적인 아이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가지고 있는 개수이다. 에코백은 비닐봉지나 종이봉투보다 재료와 시간, 공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코백이 친환경적이라면 한두 해가 아니라 닳고 헤질만큼은 사용해야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짐을 넣는 용도가 아닌, 그날그날 패션 코디에 어울리게 매치할 수 있는 재질과 크기, 여러 색상의 에코백을 소장 중이라면 오히려 일회용품보다 환경에 더욱 해로울 수도 있다.

**말뿐인 에코?**

요즘 에코백은 많아요 너무 많아요. 기업 행사 등에서 판촉물로 에코백을 무분별하게 나눠주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며, 제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의 선택이 아닌 덤으로 소장하게 된 에코백에 쉽게 손이 가질 않아 방치된다는 것도 문제예요.

또 손쉬운 공정과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되는 에코백 특성상 견고하게 제작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값싸게 구매한 에코백을 몇 개월 채 쓰지 못하고 가방 일부분의 실밥이 풀어지거나 헤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그리고 무늬만 에코백인 경우도 많아요. 지구를 위한 제대로 된 에코백을 고르려면 합성 가죽이나 플라스틱, 천 소재에 가죽이 덧대어져 만들어진 것이 아닌 천연 면이나 캔버스 천 등 천연 소재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살펴봐야 해요. 또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하거나 현수막, 버려진 의류를 가공해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도 좋아요. 이왕이면 화학 염료를 덜 쓴 무형광 제품이면 더욱 좋아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

에코백 하나를 만들려면 일회용 비닐을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노동력, 그리고 비용이 든다. 이왕 손에 들어온 에코백이라면 그 가치가 제대로 빛을 볼 수 있도록 제대로 사용해 보자. 먼저 예쁘다고 사 모으던 에코백 쇼핑부터 멈춰야 한다. 애초에 이 백은 패션이 아닌 지구를 위한 선택이었으므로, 필요한 한두 개 정도만 소장하여 닳고 헤질 때 까지 오래오래 사용하는 것이 옳다.

이미 여러 종류의 에코백을 소장 중이라면 사용 용도에 따라 가방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장을 볼 때 전체 물건을 담을 커다란 가방 하나, 야채 등 오염이 있을 수 있는

지구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에코백이  
오히려 지구를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식재료를 담은 가방, 공산품 등 깨끗한 물건을 담은 가방처럼 크기와 재질, 사용 용도를 달리하여 챙기면 에코백 안에 비닐 봉투에 담긴 물건을 넣을 일이 줄어들어요. 또 밀폐용기 등을 챙겨 물기가 있는 음식이나 냉장·냉동 보관 식재료를 담으면 집에 와서 다시 소분하거나 정리할 일이 줄어들어 수고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이 외에도 회사나 학교 등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에 집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에코백을 모아놓고 함께 쓰는 것도 좋아요. 갑작스레 물건을 담거나 장을 볼 일이 생길 때 유용하며,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에코백 사용을 자연스럽게 습관화 할 수 있어요. 지구와 우리 모두를 위한 선택 에코백. 그동안 불필요하게 많은 개수를 소장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오늘부터라도 패션 아이템이 아닌 친환경 아이템으로서 에코백 사용을 실천해 보는 것을 어떨까요. ♻️



## 중앙회 소식



1. 2023 온두라스·페루 새마을운동 초청연수(9.12.~22.)

중앙회는 지난 9월 12일부터 21일까지 지속 가능한 지구촌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해 온두라스·페루 공무원과 새마을지도자 26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새마을 초청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새마을운동 이론교육과 현장학습을 통해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범마을 사업 모범 사례를 공유해 온두라스·페루 새마을운동의 현지화를 돕고자 마련됐다.



3. 파푸아뉴기니·피지 새마을운동 현장 모니터링(9.16.~27.)

곽대훈 중앙회장은 지난 9월 16일부터 27일까지 파푸아뉴기니와 피지 두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새마을운동의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촌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곽 회장은 2개국 순방을 통해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새마을운동 확산을 강조하고 새마을시범마을을 방문해 마을주민들을 격려했다.



2. 새마을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특별전시(9.13.~10.27.)

중앙회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새마을청소년교육장에서 새마을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시회를 개최했다. '초록바람, 추억이 되다! 희망이 되다!' 이름으로 열린 이번 특별전시는 53년간 지속된 새마을운동의 발자취를 담은 사진전과 새마을운동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실천운동의 의미를 담아 낸 현대미술전으로 진행했다.



4. 보츠와나 외교부 장관 면담(10.18.)

지난 10월 18일 곽대훈 중앙회장은 보츠와나 외교부 장관과 주한 보츠와나 대사의 예방을 받고, 중앙회 접견실에서 환담을 나눴다. 이날 레모강 크와페 보츠와나 외교부 장관은 곽 회장에게 새마을운동을 통한 국제협력 사례 공유를 요청하고, 양국의 교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시·도 소식

### 서울 | 사랑의 손길, 따뜻한 세상 만드는 김장 나눔

서울특별시부녀회(회장 조동희)는 협의회와 새마을청년연합회 회원 300여명과 함께 지난 11월 6~7일 산업은행 본관 앞에서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위한 김장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틀간 실시된 이번 사업에서 약 12,500포기의 김치를 담갔으며,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세대에 전달됐다.



### 부산 | 이야기가 있는 벽화로 마을 골목길 탈바꿈

부산광역시새마을회(회장 제중모)는 지난 10월 28일 낙후된 마을 이미지 개선을 위해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30번길 골목 일대를 벽화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날 사업에는 부산 지역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과 지역주민 30여 명이 함께 참여했으며, 공동체 문화를 체험하고 봉사활동의 보람도 느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 대구 | 마늘농가 일손돕기 및 독서문화공동체 조성

대구광역시협의회(회장 김기출)는 지난 11월 7일 도농상생 활동의 일환으로 군위군에 위치한 마늘 농가를 찾아 부족한 일손을 보탰다. 문교 대구광역시지부(회장 이승로)는 지난 11월 4일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대통령기 제43회 국민독서경진 대구광역시대회 및 제12회 독서왕 도전 골든벨 시상식을 개최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과 가족, 시민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 인천 | 청년연대 간담회 및 농촌일손돕기 추진

인천광역시청년새마을연합회(회장 서현서)는 협의회(회장 한광인) 후원으로 지난 10월 26일 새마을회관에서 사업추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회장 한광인)는 지난 10월 19일 강화군 고구마 농가에서, 부녀회(회장 이정자)는 10월 18일 서구 고추 농가에서 각각 부족한 일손을 보태는 도농상생 협력 활동을 추진했다.



### 광주 | 김장 김치로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

광주광역시부녀회(회장 김용희)는 지난 11월 15일 서구 일원에서 15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가 참여한 가운데 '행복나눔, 사랑의 김장' 사업을 전개했다. 시새마을회와 관내 복지기관도 참여해 김치소 버무리기를 시작으로 이날 3,000포기의 김장을 해 관내 홀몸 어르신, 청소년가정,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500상자를 전달했다.



### 대전 | 탄소중립 실천 다짐 워크숍 개최

대전광역시부녀회(회장 남희수)는 지난 11월 1일 시청 대강당에서 이장우 시장, 김진오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하여 시새마을회 회장단, 회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대전새마을부녀회장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유공 새마을지도자 표창과 대회사, 격려사, 탄소중립 실천 다짐 선언과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 시·도 소식

## 울산 | 새마을운동 활성화 위한 맞손

울산광역시새마을회(회장 정대식)는 경상남도새마을회(회장 안화영)와 지난 11월 16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시 새마을회관에서 개최된 이번 업무협약식은 양 기관의 회장단과 새마을지도자,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 세종 | 새마을운동 확산 위한 국제협력 사업 추진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는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캄보디아 바탐방 주 삼롱마을을 찾아 새마을사업을 전개했다.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회장단과 새마을지도자 15명이 참여했으며, 학교 공용 화장실 건립 공사와 도색 등 마을회관 개선 사업을 펼쳤다.



## 경기 |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위한 경기농업한마당 개최

경기도협의회(회장 양윤호)와 부녀회(회장 서영숙)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옛 경기도청 잔디마당에서 경기농업한마당을 열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새마을지도자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도민에게 다양한 김장 관련 체험뿐만 아니라 신선하고 안전한 농·특산물을 제공하고, 농산물 판로 확대 및 소득증대로 도농상생의 기회를 마련했다.



## 강원 |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전개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회장 박형배)는 홍천, 원주, 태백 등에서 3개의 시범마을을 선정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천군 남면은 관내 테마공원 내 포도존을 설치하고, 원주시 무실동은 폐자전거를 수리해 필요한 가정에 전달했으며, 태백시 황연동은 어르신과 주민을 대상으로 악기 수업을 진행했다.



## 충북 | 2023 직장새마을운동 활성화 다짐대회 개최

직장·공장새마을운동충청북도협의회(회장 정태우)는 지난 11월 13일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직장 내 '탄소중립 생활화'를 약속하는 2023 직장새마을운동 활성화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498개 회원사는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절약, 플라스틱 및 종이컵 등 1회용품 사용 최소화하기 등을 집중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 충남 | '2023 힘센충남, 청년과 새마을운동 미래를 꿈꾸는 포럼' 개최

충청남도새마을회(회장 이경용)는 지난 10월 26일 홍성읍 홍성문화원에서 '2023 힘센충남, 청년과 새마을운동 미래를 꿈꾸는 포럼'을 개최했다. 충청남도 청년새마을연합회(회장 명철아)와 시군 청년연대 회장단 및 회원, 남서울대학교새마을동아리(회장 김서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강원대, 국제대, 남서울대 교수가 충청남도 청년새마을연합회의 나아갈 방향과 새마을운동 추진 방안 등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고, 이후 청년들과 함께 발전 방안 및 문제점 등에 관한 열린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 전북 | 업무협약 체결로 새마을운동 추진 역량 강화

전라북도새마을회(회장 구자강)는 지난 10월 4일 광주광역시새마을회(회장 정경주)와 새마을운동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 새마을회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양 기관의 회장단 및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공동 사업 발굴 추진 등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 전남 | 우수농산물 체험 및 홍보 활동

전라남도새마을회(회장 이귀남)는 지난 11월 7일 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 특산물인 고흥군 유자 수확과 유자청 만들기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김건희 여사와 청년새마을연대 회원, 새마을지도자 등 40여 명이 참여한 이날, 유자청을 포함해 고흥군 특산물인 유자를 활용한 막걸리, 빵, 한과, 식혜 등 다양한 유자 제품을 선보이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전개했다.



## 경북 | 도민 정신함양교육 등 교육·문화사업 추진

경상북도새마을회(회장 이종평)는 지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경주 덕계이호텔에서 새마을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신함양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0월 17일 부녀회(회장 김옥순)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제30회 새마을합창 힐링콘서트를 개최해 시민과 새마을지도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한마당을 마련했다. 한편, 2023 경북 새마을지도자대학 수료식이 지난 10월 11일 김천대학교에서 개최됐으며, 김옥순 도부녀회장, 김병호 협의회부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경남 | 2023 찾아가는 이·미용 활동 전개

경상남도새마을회(회장 안화영)는 지난 10월 10일 하동군 적량면 삼화예코하우스에서 관내 어르신 5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경남 실현'을 위한 찾아가는 이·미용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창신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은 재능기부를, 교통봉사대경남지대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을 적극 도왔다.



## 제주도 | 캄보디아에 전해진 새마을정신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회장 이기창)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프롬 토르마을을 찾았다. 캄보디아 농촌개발부 공동체개발국장과 구청장, 새마을협력관, 마을 이장 등 현지 주민과 초등학교생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건강과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 내 15가구의 화장실 건립 지원을 약속하는 기증식을 개최했다.



## 이북5도 | 새마을장터 운영 및 업무협약 체결

이북5도새마을회(회장 조성원)는 지난 10월 23일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이훈)에서 주최하는 제41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도새마을회는 팜플릿을 배포하며 내빈과 도민 안내를 돕고, 부녀회(회장 김수정)는 새마을장터를 운영했다. 장터 운영 수익금은 북녘다제내성결핵환자 치료 성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 현장은 지금

### 공동체 문화 조성

- 문고 서울 광진구지부(회장 권중형)는 지난 10월 12일 아차산 입구 배드민턴장에서 제20회 광진구민과 함께하는 '새마을문고지도자 야외백일장'을 개최했다.



- 문고 서울 종로구지부(회장 채범규)는 지난 10월 25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2023 종로구민 알뜰도서 교환전'을 진행했다.
- 서울 용산구새마을회(회장 지영환), 협의회(회장 손성열), 부녀회(회장 서연순)는 지난 10월 28일 경기도 고양시 능곡에 위치한 고구마 농가에서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했다.
- 서울 성동구지회(회장 유영석)는 지난 11월 9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과수농가에서 '사랑의 농촌 일손 돕기' 사업을 펼치고 배 150kg을 수확했다.
- 서울 중랑구 면목7동협의회(회장 모병남)는 지난 11월 5일 관내 취약계층 10세대의 집을 고쳐주는 활동을 펼쳤다.
- 서울 동작구지회(회장 김태완)는 지난 10월 5일 도·농 교류 자매결연을 맺은 전북 무주군 농가에서 고구마 수확 및 선별 작업 등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전개했다.



-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협의회(회장 박연수)는 지난 10월 16일 관내 주민센터와 새마을어린이공원 등에서 방역 활동을 펼쳤다.
- 인천 미추홀구 도화1동부녀회(회장 황현주)는 지난 10월 31일 '사랑의 밑반찬 나눔' 사업을 펼치고 관내 소외계층 100세대에 전달했다.

- 인천 연수구 선학동협의회(회장 송동규)와 부녀회(회장 최미란)는 지난 10월 26일 '갈비탕 나눔' 사업을 펼치고 관내 소외계층 및 홀몸 어르신 100세대에 전달했다.
- 인천 계양구 작전서운동부녀회(회장 박애자)는 지난 10월 31일 행정복지센터에서 태화한진까지공원, 서운고등학교까지 야간 방법활동을 전개했다. 계산4동부녀회(회장 이옥임)는 지난 10월 26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반찬 나눔 사업을 펼치고 소외계층 및 홀몸 어르신 28세대에 전달했다.
- 인천 동구 화도진청년새마을연대(회장 서현서)는 지난 10월 29일 유기견보호센터를 방문해 견사 청소와 보수작업을 하고 사료 130kg과 애견용품을 기부했다.



- 문고 강원 평창군지부(회장 장미숙)는 지난 10월 19일 원주시 박경리문학관으로 '길 위의 인문학교실 독서문화기행'을 다녀왔다. 평창읍부녀회(회장 원금숙)는 지난 11월 9일 관내 거동이 불편하신 홀몸 어르신 세대를 찾아 목욕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용평면협의회(회장 최기철)와 부녀회(회장 정해옥)도 지난 11월 8~9일 관내 취약계층 및 홀몸 어르신 등 300세대에 사랑의 김장 김치를 만들어 전달했다.
- 강원 철원군 동송읍부녀회(회장 신순희)는 지난 11월 7일 관내 신병교육대에서 '일일부모 되어주기' 활동을 진행했다. 철원읍부녀회(회장 이옥섭)는 지난 10월 20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취약계층 및 홀몸 어르신 75세대에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했다.
- 강원 고성군 현내면부녀회(회장 신은하)는 지난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관내 취약계층 50세대와 경로당 16곳에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 탄소중립 실천

- 서울 용산구새마을회(회장 지영환)와 서빙고동협의회(회장 류수량)는 지난 10월 30일 용문동 용문시장 내에서 투명 페트병

## 서울 · 인천 · 강원

- 회수율을 높이고 분리배출 참여를 독려하는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 서울 광진구협의회(회장 안문환)는 지난 10월 25일 중곡제일시장에서 쓰레기분리수거 제도활동 및 아이스팩 재활용 캠페인을 전개했다. 군자동협의회(회장 김종우)는 지난 11월 1일 관내 소외계층 및 홀몸 어르신 댁을 찾아 '에너지절약 소외된 이웃 LED 등 교체해 주기' 사업을 전개했다.
- 서울 중랑구지회(회장 김무겸)는 지난 10월 25일 중랑구민회관에서 관내에서 회수된 아이스팩을 재활용해 전통시장에 배부했다.
- 서울 은평구 응암3동협의회(회장 노윤생)와 부녀회(회장 유영희)는 지난 9월 22일 관내에서 투명 페트병 수거 및 아이스팩 재활용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 서울 영등포구 본동협의회(회장 인승구)와 부녀회(회장 신현이)는 관내 일대의 낙엽 및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대청소를 펼쳤다.
- 서울 서초구 반포3동부녀회(회장 윤미순)는 지난 10월 11일 주민센터 일대에서 페트병 수거망과 아이스팩 포장재 배부 및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했다.
- 인천 계양구 작전서운동부녀회(회장 박애자)는 지난 10월 10일 관내 버스정류장 일대를 돌며 '새마을줍깅데이' 사업을 진행했다.
- 인천 남동구 간석3동협의회(회장 김봉호)와 부녀회(회장 서영란)는 지난 10월 14일 관내에서 수거한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525kg을 매각했다.

-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부녀회(회장 이영우)는 지난 10월 20일 인천터미널과 중앙공원 등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새마을줍깅데이' 활동을 펼쳤다.



- 직장·공장 인천 서구협의회(회장 한선희)는 지난 11월 7일 심곡천변에서 '생명하천 가꾸기'의 일환으로 심곡천 EM(유용미생물균) 흙공 던지기 사업을 펼쳤다. 청라1동협의회(회장 조성관)와 부녀회(회장 심설희)는 지난 11월 3일 행정복지센터에 재활용 의류 1,052kg 및 알루미늄캔 70kg을 매각한 수익금 500,000원을 전달했다.
- 강원 평창군 방림면협의회(회장 경민수)와 부녀회(회장 이영희)는 지난 10월 23일 관내 하천 주변에서 새마을줍깅을 실시하고, 하천정화 활동을 펼쳤다.
- 강원 속초시새마을회(회장 이영철)는 지난 10월 6~8일까지 설악문화재에서 '투명 페트병을 활용한 재활용 화분만들기'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 강원 철원군 동송읍협의회(회장 변영식)는 지난 11월 9일 관내를 돌며 영농폐비닐 40톤을 수거했다. 서면부녀회(회장 김상단)는 지난 10월 30일 관내 재활용 캔 분리 작업과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전개했다.
- 강원 고성군지회(회장 어준기)는 지난 9월 8일 관내 30개 해수욕장에서 '2023년 세계산림엑스포' 개최를 기념해 국토대청결운동을 펼쳤다.

부산 · 대구 · 울산 · 경기 · 세종 · 제주 · 이북5도

공동체 문화 조성

- 부산 강서구 명지1동협의회(회장 김천열)는 지난 10월 25일 새마을동산에 새마을기념비를 건립했다.



- 부산 해운대구부녀회(회장 김순애)는 지난 11월 9일 문화복합센터 광장에서 '공동체운동 확산을 통한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랑이득 김장나눔 릴레이'를 실시했다.
- 부산 금정구 부곡3동부녀회(회장 김영순)는 지난 11월 7일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관내 취약계층 30세대에 돼지불고기 및 키트, 과일 등을 전달했다.
- 부산 연제구협의회(회장 김해옥)는 지난 10월 26일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주거지 환경 개선을 위해 '사랑의 집 고쳐주기' 활동을 실시했다.
- 부산 사상구부녀회(회장 조혜옥)는 지난 10월 17일 모라 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새마을 행복나눔 빨래방' 사업을 펼치고 홀몸 어르신 세대에서 수거한 이불을 세탁하여 전달했다.
- 부산 기장군 철마면부녀회(회장 최영희)는 지난 10월 18일 임기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새마을 세탁차량 행복나눔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 대구 북구 복현2동부녀회(회장 이미숙)는 지난 10월 31일 관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게 반찬을 전달하는 '사랑의 반찬 나눔' 사업을 펼쳤다.
- 울산 동구 전화2동협의회(회장 김기명)와 부녀회(회장 김옥연)는 지난 11월 2일 관내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삼계탕 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 울산 울주군 온산읍부녀회(회장 박노희)는 지난 10월 25일 온산 덕신1차·2차 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 경기 오산시부녀회(회장 홍영숙)는 지난 11월 1~2일 새마을회관에서 '2023 사랑의 김장 담그기' 사업을 진행하고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등 250가구에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 경기 하남시 위례동부녀회(회장 이순기)는 지난 11월 9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사업을 펼치고 관내 취약계층 30세대에 전달했다.
- 경기 구리시 동구동부녀회(회장 김경순)는 지난 11월 7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취약계층 30세대를 위한 '사랑의 한 끼 반찬 나눔' 사업을 진행했다.
- 경기 안성시 양성면부녀회(회장 김향자)는 지난 11월 8일 면사무소에서 '어려운 이웃돕기 알타리 김치 나눔' 활동을 실시하고 관내 취약계층 100세대에 전달했다.
- 경기 의왕시 부곡동부녀회(회장 김순숙)는 지난 11월 10일 신협본점 야외주차장에서 부곡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행복연대 징검다리, 의왕시장에이노자립생활센터, 의왕시척수장애인협회,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부곡동민과 함께하는 같이, 같이 바자회'를 개최했다.
- 경기 과천시새마을회(회장 장종근)는 지난 11월 2일 새마을회관 강당에서 홀몸 어르신 100여 명을 초청해 직접 준비한 생신상으로 생신잔치를 열어 드리고 선물을 전달했다.

부산 · 대구 · 울산 · 경기 · 세종 · 제주 · 이북5도



- 경기 여주시새마을회(회장 고광만)는 지난 11월 8~9일 이틀간 관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해 '사랑의 김장 담그기' 활동을 진행하여 400상자의 김장 김치를 읍면동별로 전달했다.
- 경기 가평군새마을회(회장 엄철교)는 지난 11월 10일 '2023년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사랑의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 경기 의정부시새마을회(회장 최병옥)는 지난 11월 14일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제18회 김장 나누기, 행복 곱하기' 활동을 펼쳤다.
- 경기 파주시새마을회(회장 김경선)는 지난 11월 7~8일 탄현면 통일동산 공영주차장에서 김치 1,000통을 담가 홀몸 어르신과 소외 계층에게 전달했다.
-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협의회(회장 김영욱)는 지난 11월 13일 씨름 경기 중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현철 씨에게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 제주 서귀포시 대천동부녀회(회장 박원희)는 지난 10월 26일 캔싱터리조트에서 관내 200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경로효친 실천 사업을 전개했다.

탄소중립 및 환경정화

- 부산 수영구새마을회(회장 박해운)은 지난 11월 6일 민락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 줄이기' 수업을 진행하고 '염색 손수건 만들기' 체험 교실을 운영했다.
- 울산 북구 농소2동협의회(회장 김영식)와 부녀회(회장 김영숙)는 지난 11월 9일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약수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 대구 수성구 황금1동협의회(회장 김수만)는 지난 11월 8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성동초등학교에서 방역 활동과 등굣길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 대구 달서구 용산2동부녀회(회장 김진우)는 지난 11월 14일 행정복지센터에서 탄소중립 실천 활동의 일환으로 친환경 EM(유용미생물균) 주방 세제를 만드는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경로당에 전달했다.



- 대구 달성군 하빈면부녀회(회장 조옥순)는 지난 10월 30일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내 다시 입을 수 있는 옷과 이불을 수거하는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 경기 군포시새마을회(회장 서태연)는 지난 10월 14일 군포시청 야외공원에서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활용 확산을 위한 자전거 대행진 활동을 벌였다.
-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협의회(회장 박창기)는 지난 10월 12일 관내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코스모스 동산에서 쓰레기를 줍는 정화 활동을 펼쳤다.



- 경기 양주시 장흥면협의회(회장 지현소)는 지난 10월 4일 관내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 경기 안성시 삼죽면협의회(회장 심경섭)와 부녀회(회장 이재순)는 지난 11월 1~2일 삼죽면 지운마을 일원에서 농지오염 방지를 위해 영농 폐비닐 집중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 경기 포천시 영중면부녀회(회장 조선호)는 지난 10월 19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수거' 활동을 진행했다.
- 경기 연천군새마을회(회장 이인행)는 지난 10월 27일 연천군시설관리공단과 함께 한탄강관광지에서 EM(유용미생물균) 흙공 던지기와 한탄강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대전 · 광주 · 충북 · 충남 · 경북

공동체 문화 조성

대전 서구부녀회(회장 김화자)는 지난 9월 22일 복수동새마을회관에서 명절음식 4종(송편, 동그랑땡, 대구포, 삼색전)을 만들어 관내 어려운 이웃 240세대에 전달했다.



대전 대덕구부녀회(회장 심영낙)는 지난 10월 4일 1:1 결연을 맺은 홀몸 어르신들을 모시고 김천 직지사사 옥천 라온플 농촌문화체험장에서 천연염색 체험 활동을 하며 고부 나들이 활동을 실시했다.

광주 남구 월산4동부녀회(회장 송병운)는 지난 10월 26일 가래떡 데이를 맞아 가래떡 잇기 홍보활동과 국제행사 성공개최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광주 북구부녀회(회장 김옥자)는 지난 9월 21일 양상동행정복지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송편을 만들고 관내 소외계층에 명절 음식을 전달했다.

장준기 충북 충주시 연수동협의회장은 지난 11월 7일 행정복지센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직접 농사지는 고구마 5kg 20상자를 전달했다.

문고 충북 증평군지부(회장 박영미)는 지난 10월 6일 학생들의 독서 생활화와 애乡심을 높이기 위해 초등학생 3학년부터 6학년 5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 골든벨을 개최했다.



충북 괴산군부녀회(회장 임정숙)는 지난 10월 24일 노인복지관 식당에서 이웃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배식 활동을 전개했다. 청안면협의회(회장 정상덕)와 부녀회(회장 김명수)는 지난 11월 6~7일 직접 재배한 배추로 김치를 담가 관내 취약계층에 100

상자(10kg), 마을 경로당에 100상자(20kg)를 전달했다.

충북 음성군새마을회(회장 신혜숙)는 지난 10월 27일 음성을 수정산농원에서 봄에 담근 된장 나누기 활동을 진행했다. 감곡면협의회(회장 이종국)와 부녀회(회장 박경순)는 지난 11월 5~7일까지 배추 1,000포기로 김장을 해 관내저소득층 200여 세대와 경로당에 전달했다.

문고 충북 영동군지부(회장 이순복)는 지난 11월 2일 군청 민원실에 도서 250여 권을 기증받아 '새마을 작은도서관'을 조성했다.

충남 당진시 송산면협의회(회장 최덕영)와 부녀회(회장 이성희)는 직접 재배한 배추와 재료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김장 김치를 담가 관내 취약계층 50세대에 전달했다.

충남 금산군부녀회(회장 박숙희)는 지난 10월 19일 관내 어르신 50여 명을 모시고 예산 세심천으로 온천 나들이를 다녀왔다.

충남 예산군 신암면협의회(회장 김정렬)와 부녀회(회장 김양순)는 지난 11월 2일 행정복지센터에서 배추 500포기로 김장을 해 관내 어려운 이웃 100세대에 전달했다.



충남 부여군지회(회장 박윤근)는 지난 10월 31일 부여군유스호스텔 체육관에서 남너지도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다짐하는 '2023 부여군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세도면협의회(회장 임성병)와 부녀회(회장 신영순)는 지난 9월 19일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송편, 고추장 나눔' 사업을 펼치고 관내 소외된 이웃 114가구에 전달했다.

충남 홍성군부녀회(회장 강정임)는 지난 9월 3일 홍성마라톤대회장에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먹을거리 부스를 운영했다. 홍동면부녀회(회장 모영미)는 지난 10월 31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랑의 기부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충남 태안군지회(회장 김기원)는 지난 11월 2일 태안군민체육관에서 남너지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새마을지도자 활성화대회'를 개최했다.

경북 울릉군새마을회(회장 정석두)는 지난 10월 25~28일 경남

대전 · 광주 · 충북 · 충남 · 경북

하동군지회(회장 임태경)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독도에 입도해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을 펼쳤다.



경북 의성군 점곡면부녀회(회장 이종녀)는 지난 9월 20일 동변2리 홀몸 어르신 댁의 빨래를 수거해 세탁 후 가져다 드리는 이동빨래방 활동을 진행했다.

경북 영양군 입암면협의회(회장 우재운)와 부녀회(회장 장명숙)는 지난 9월 26일 면사무소에 관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 80포(5kg)를 전달했다.

경북 성주군새마을회(회장 유문성)는 지난 10월 31일 새마을회관 강당에서 성주군청년새마을연대 총회 및 발대식을 개최하고, 초대회장으로 최기천 씨를 선출했다.

경북 칠곡군부녀회(회장 장춘화)는 지난 9월 22~27일 관내 결연을 맺은 홀몸 어르신 17세대에 생필품(밀가루, 참기름, 식용유, 통조림 등)을 전달했다.

경북 울진군 북면 신화2리 전총협지도자는 지난 10월 30일 면사무소에 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한 기부금은 관내 홀몸 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25세대에 40만 원씩 전달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천

대전 유성구부녀회(회장 김명선)는 지난 10월 10일 13개 동 부녀회장과 새마을회관에서 EM(유용미생물군) 휴공 만들기 활동을 실시했다.



광주 광산구 신흥동부녀회(회장 우효순)는 지난 10월 18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실천의 일환으로 EM(유용미생물군)미용비누·세탁비누 만들기를 전개했다.

충북 진천군협의회(회장 김진주)와 부녀회(회장 이정심)는 지난 10월 18일 백곡저수지 인근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페페트병 수거활동을 펼쳤다. 진천읍협의회(회장 전태영)와 부녀회(회장 조효덕)는 지난 10월 14일 깨끗한 마을 만들기 위해 마을별로 농약병을 수거한 뒤 임시선별장에서 분류작업을 전개했다.

충북 단양군새마을회(회장 오수원)는 지난 10월 5일 탄소중립 실천의 하나로 아이스팩을 수거·세척 후 재포장해 인근 정육점 등에 전달했다.

충남 청양군지회(회장 임천식)와 청년새마을연대(회장 홍성운)는 지난 10월 16일 청양군 MG새마을금고에서 금고를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재활용 아이스팩을 전달하고 투명페트병 수거망을 배포해 올바른 분리수거 홍보를 실시했다.

충남 예산군 덕산면협의회(회장 최종득)와 부녀회(회장 박연숙)는 지난 11월 3일 온천단지 내 도로변의 환경정화 활동과 제초작업을 전개했다.

충남 서천군 한산면협의회(회장 노도준)와 부녀회(회장 박미연)는 지난 10월 30일 관내 일원에서 종이류, 고철류, 유리병 등과 페비닐, 영농폐기물 등 1톤가량의 숨은 자원을 수거했다.

경북 문경시 점촌2동협의회(회장 한주열)와 부녀회(회장 권점분)는 지난 10월 31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싱크대 교체와 집안 물품 정리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펼쳤다.

경북 의성군 산성면협의회(회장 한덕훈)는 지난 10월 25일 방치되는 영농 폐비닐을 효율적으로 수집 관리하기 위한 새마을운동 자원 재활용 창고 준공식을 열었다.

경북 봉화군 물야면협의회(회장 안수창)와 부녀회(회장 김순녀)는 지난 10월 16일 내성천 안길 및 도로변 3km 구간을 따라 농업 폐기물과 무단투기 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



전북 · 전남 · 경남

공동체 문화 조성

• 전북 전북대새마을동아리(회장 안대훈)와 전주대새마을동아리(회장 윤명원) 회원 30여 명은 전주시새마을회(회장 원석) 회원들과 함께 지난 11월 11일 관내 화약골경로당의 담장 거미줄과 이끼, 곰팡이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담장에 그림을 그리는 '아름다운 전주시 벽화 그리기' 사업을 실시했다.



• 전북 남원시 수지면부녀회(회장 진순임)는 지난 11월 7일 관내 동행재가복지센터를 방문해 화장지와 세제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어르신 말벗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 전북 임실군지회(회장 위중량)는 지난 10월 30일 관내 취약계층에 연탄 1,700장을 전달했다. 지사면협의회(회장 조완열)와 부녀회(회장 이순여)는 지난 11월 8일 직접 재배한 배추 400포기를 수확해 김장 김치를 담가 각 마을의 어려운 이웃 75세대에 전달했다.

• 전북 고창군부녀회(회장 문원애)는 지난 10월 31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성금 200만 원을 고창군에 기탁했다. 아산면협의회(회장 이만수)과 부녀회(회장 김혜경)는 지난 11월 2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담그고 포장한 고추장을 관내 홀몸 어르신과 취약 계층 150세대에 전달하는 '행복나눔 고추장 담그기' 사업을 펼쳤다.

• 전북 부안군 보안면협의회(회장 김영일)와 부녀회(회장 박남수)는 지난 11월 6일 청자골문화센터에서 '사랑의 밑반찬 나눔' 활동을 실시하고 직접 담근 고추장을 관내 소외된 어려운 이웃과 취약 계층 90세대에 전달했다.

• 전남 함평군부녀회(회장 서옥란)는 지난 11월 8일 사랑의 밑반찬을 만들어 관내 홀몸 어르신, 장애가정 등 저소득 소외계층 150세대에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 전남 고흥군 동강면부녀회(회장 송영남)는 지난 10월 26일 면사무소에 라면 60상자(120만 원 상당)를 기탁하고, 인근 경로당에 직접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 전남 장흥군새마을회(회장 김일진)는 지난 10월 30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내 저소득 가구 주택의 입식 화장실 시공, 벽지·장판 교체, 대청소 등 '사랑의 집 고쳐주기' 활동을 실시했다.

• 경남 밀양시협의회(회장 이선동)는 지난 11월 12일 상남면 남동마을 일대에서 우편함이 없거나 노후화된 우편함으로 인해 공공요금 고지서 등의 수신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희망소식 우편함 달아주기' 사업을 추진했다.

• 문고 경남 함안군지부(회장 진학상)는 지난 10월 27일 함안여자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전! 청소년 독서 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 경남 고성군 거류면협의회(회장 진효철)와 부녀회(회장 허은정)는 지난 11월 3일 국과 반찬을 만들어 경로당어르신들에게 대접하고, 관내 경로당 25개소에 전달했다. 구만면협의회(회장 김중렬)와 부녀회(회장 강현순)는 지난 11월 3일 효락리 낙동마을 기초수급자 가정에 방문해 '사랑의 집수리 활동'을 펼쳤다.

• 경남 남해군부녀회(회장 광영순)는 지난 11월 1일 남해읍 새마을

전북 · 전남 · 경남

향기뜨락 작업장에서 새마을지도자를 비롯해 한국전력남해지사 및 MG미송새마을금고 봉사대, 청년새마을연대 회원 등 40여 명과 함께 연말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를 진행했다.

• 경남 거창군부녀회(회장 신영애)와 새마을청년연대(회장 남동현)는 지난 11월 13일 북상면 월성마을 어르신 50여 명을 대상으로 새마을부녀회는 염색, 커트, 화장 등 이·미용 활동을 담당하고, 새마을청년연대는 장수사진과 추억의 교복사진 등 기념사진 촬영 활동을 펼쳤다. 문고 경남 거창군지부(회장 이선숙)는 지난 11월 6일 군청 앞 로터리 문화공간에서 군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해 1,000여 권의 도서를 비치한 가운데, 읽고 난 도서 2권을 새 책 1권으로 무료 교환해 주는 알뜰 도서 교환 시장을 열었다.



• 경남 합천군 초계면협의회(회장 이규형)와 부녀회(회장 김일순)는 지난 11월 14일 취약계층 및 홀몸 어르신 댁에 방문해 직접 만든 밑반찬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가야면협의회(회장 배영효)와 부녀회(회장 정미숙)는 지난 11월 9~10일까지 이틀 동안 '홀몸 어르신 사랑잇기' 사업을 진행하고 직접 담근 고추장을 홀몸 어르신 52세대에 전달했다.

탄소중립 실천

• 전남 보성군 울어면협의회(회장 임병섭)는 지난 10월 26일 관내 일원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농약병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 전북 부안군 상서면협의회(회장 김춘식)와 부녀회(회장 정옥기)는 지난 11월 6일 상서면 모항해수욕장 및 아영장, 공영주차장 일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 전남 고흥군 포두면부녀회(회장 신양숙)와 두원면부녀회(회장 정현숙)는 지난 11월 6~7일에 각각 해장만오토캠핑장 일대와 두원면 해안가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 활동을 펼쳤다.

• 전남 무안군 무안읍협의회(회장 백계복)는 지난 10월 27일 '2023 무안갯벌낙지축제'를 맞아 빨라지거리 및 축제장 주변의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 전남 신안군새마을회(회장 오인석)는 지난 10월 29일 압해읍 동서리에서 14개 읍·면 회장단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쓰레기 100여 톤을 수거하는 깨끗한 전남 만들기 캠페인을 펼쳤다.

• 전남 영암군 덕진면협의회(회장 정병길)는 지난 11월 8일 영암천 덕진교 일대의 쓰레기 수거 활동을 펼쳐 깨끗한 하천 만들기 에 앞장섰다. 영암읍협의회(회장 박오복)는 같은 날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관내 버스정류장 6개소의 청결 활동을 펼쳤다.



• 경남 창녕군새마을회(회장 손성호)는 지난 10월 31일 새마을회관에서 청년새마을연대와 함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교육 및 직접 포장한 재사용 아이스팩을 주변상가에 나눠주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아이스팩 재활용 활성화 운동에 앞장섰다.

• 경남 하동군지회(회장 임태경)는 지난 11월 9일 하동공설운동장 앞 부지에서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농촌의 환경을 개선해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고자 '군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영농 폐자원 수집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 경남 함양군지회(회장 조명환)는 지난 10월 18일 함양군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생명 살림 자원재활용 수집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등 약 15톤을 수거해 탄소중립 생활 실천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 새마을 통통통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갑니다.



9+10월호 독자 의견 당첨자

### 공민정

대학새마을동아리 학생들의 해단식 소식과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회장단 인터뷰 기사가 눈에 띄네요. 청년세대의 새마을운동 동참이 너무 반갑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공감하고 한층 젊은 새마을운동을 위해 힘쓰는 청년세대와 새마을지도자 모두 화이팅입니다.

### 김수연

새마을운동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관련 특별전시와 작가 인터뷰 관련 소식이 참 좋았습니다. 새마을운동기록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알게 된 전시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전시를 많이 열어 주세요.

### 김재인

중년의 나이를 넘긴 어른들도 어느 청년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습니다. 또한 그 열정이 자기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를 향한다는 것이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 임성희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새마을운동의 힘 잘 보았습니다. 세계가 주목했던 한강의 기적을 이룬 동력이었던 새마을정신, 반세기가 흘러도 변하지 않고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정신적 원천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를 읽고 느낀 점, 좋았던 점이나 아쉬운 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SNS 구독하고 활동소식을 빠르게 만나세요

# 구독 좋아요 알림 이웃추가

